

Reliance, PP 생산 세계3위 위협

2006년 200만톤 이상 목표 ... 인디아 석유화학 생산능력 확대 주력

Reliance Industries가 인디아 Jamnagar 소재 Refinery 프로필렌(Propylene)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200만톤으로 120만톤 확대하거나 기존 플랜트에 PP(Polypropylene) 생산라인 2개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Reliance는 FCC(Fluidized Catalytic Cracker)의 프로필렌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FCC에 Metathesis Unit을 추가해 Refinery 에틸렌(Ethylene) 및 Butylene을 프로필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UOP가 기초 엔지니어링 작업을 끝마쳤으며 Bechtel이 전단계(Front-End)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FCC의 프로필렌 생산능력 확대공사는 1단계 35만톤 PP 생산라인의 커미셔닝과 함께 2005년 4/4분기 완료되고 또 다른 PP 35만톤 생산라인은 2006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Reliance는 2002년 Indian Petrochemicals(IPCL)의 경영지분 인수 후 PP 생산능력 140만톤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세계 6위 규모의 생산기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2006년 PP 생산능력이 200만톤 이상으로 확대되면 Basell 및 Sinopec의 뒤를 이어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iance는 Jamnagar 소재 PP 74만톤 및 Hazira 소재 PP 40만톤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IPCL은 Baroda 및 Nagothane에 총 25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Reliance는 Jamnagar 소재 Aromatic 컴플렉스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P-X(Para-Xylene) 생산능력을 162만톤으로 20% 확대하고, O-X(Ortho-Xylene) 생산능력을 42만톤으로 50% 확대할 계획이다. 벤젠(Benzene) 생산능력도 16만톤에서 39만톤으로 100% 이상 증설할 계획이다.

Reliance는 정기보수 기간인 2005년 1/4분기 동안 컴플렉스 확장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romatic 생산능력 확대 및 Dilute Ethylene 취급이 가능해 지면서 2003년 처음으로 Styrene 플랜트 건설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FCC Offgas의 27%는 에틸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수된 에틸렌은 Ethyl Benzene 58만5000톤 및 Styrene 55만톤 플랜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5/21>